

논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논개(論介, 1574년^[1] 9월 3일 ~ 1593년) 또는 **주논개**(朱論介)는 조선 전조 시대의 열녀이다. 충 계내면 대곡리 출생으로 1574년 선비 주달문(朱達文)과 부인 밀양박(朴氏) 사이에서 반가(班家양반)의 딸로 태어났다.

부친 주달문은 진사(進士)로 일찍이 슬하에 아들 주대룡을 두었으나 15세에 괴질로 요절하였고 이후 40세가 넘는 나이에서야 딸 논개를 보았다.

1578년 부친 주달문의 별세 후 숙부 주달무에 집에 위탁되었으나, 숙부가 벼 50석에 김부호(金富豪)의 집에 민며느리로 혼인시키려 하니 이를 피해 모녀는 경상도(慶尙道) 안의현의 친가에서 피신하였고, 이에 부호는 1579년 기소하여 모녀를 구금하였다.

이때, 장수 현감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의 명판결로 모녀를 석방시키고 모녀는 현감의 관저에 위탁하게 되고 후일에 최경회가 성년이 된 논개를 후처로 맞아 들인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최경회가 전라 우도의 의병장으로 의병을 모집하고 병사를 훈련할 때 논개는 이를 도우며 보필한다.

1593년 최경회가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동행하였으나, 진주성이 함락되고 최경회가 순국하자 논개는 왜장들이 진주 축석루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을 때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유인하여 남강(南江)에 투신하여 순절(殉節) 하였다.^[2]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확실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본에서는 박종화의 소설 《논개와 계월향》(1962년)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3]

의암 주논개

義菴 朱論介

출생	1574년 9월 3일 <div> 조선 전라도 장수현 계내면 대곡리</div>
사망	1593년 (향년 20세) <div> 조선 경상도 진주성에서 순절(의사)</div>
성별	여성
국적	 조선
본관	신안
부모	주달문(부), 밀양 박씨 부인(모)
배우자	최경회
종교	유교(성리학)
정당	무소속